



아르헨티나의 농산물 유통 및 가공 현황 조사보고

홍 석 인
특화연구본부

해외농업개발 투자정보의 수집, 관리, 제공 등 장기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농림부가 지원하고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 농업투자환경 정책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남미 아르헨티나를 2005년 5월 18일부터 31일까지 13박 14일간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농진청, 농경연 등 유관기관 전문가 7인과 함께 방문하여 국가 및 주산단지 농업현황과 투자환경을 조사하였다. 본 조사보고는 아르헨티나의 농업전반, 축산, 주산단지, 농업기반, 농산물 통상과 관련한 현황 및 법령, 제도에 대한 조사내용 가운데, 농산물의 유통 및 가공 현황에 관한 부분만을 따로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향후 남미 진출 및 아르헨티나와의 농업교역 확대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주: 아르헨티나 경제부 농목축수산국(SAGPyA), INTA 농업경제연구소, INTA 과수·농업연구소, 부에노스아

이레스 농산물 중앙도매시장,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정부, 오렌지·토마토 선과/포장시설(Huertas Verdes 농장, Frutales 사), 소목장(Gloria 목장)
- 리오네그로(Rio Negro)주: 리오네그로주정부, 까뜨리엘(Catriel)시, 라마르께(La Marque)시, 라마르께 한인교민 사과농장, 사과 선과/포장시설(Expo Frut 사), 리오네그로 농업연구소, 동식물검역소(FunBaPa)
- 멘도사(Mendoza) 주: 멘도사주정부, ProMendoza, 포도농장, 마늘·당근 선과/포장시설(Pontoni 사), 농업개발연구소(IDR)

I. 일반현황

지구 남반구에 위치한 아르헨티나에는 다양한 기후대가 존재하여 밀, 옥수수, 콩, 해바라기 등의 곡물과, 사과, 배, 포도 등의 과실, 소, 양, 돼지, 닭 등의 가축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농축산물이 생산된다. 아르헨티나 농업은 정부의 지원 없

이 자연조건과 국제시장의 여건에 의해 성장, 발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심각한 외채로 인한 왜곡된 환율정책으로 환율이 높게 평가된 가운데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세가 부과되고, 공업화를 위한 저농산물 가격정책으로 농산물 가격이 낮게 유지됨은 물론, 공산품의 국산화정책과 수입대체정책으로 인해 수입농자재에 대해서도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제한 정책을 적용하여 농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그림 1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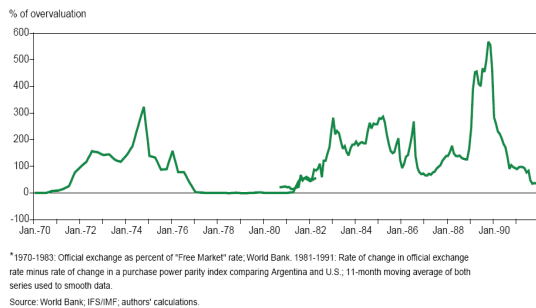


그림 1. 과거 1970-1980년대 아르헨티나의 고평가 환율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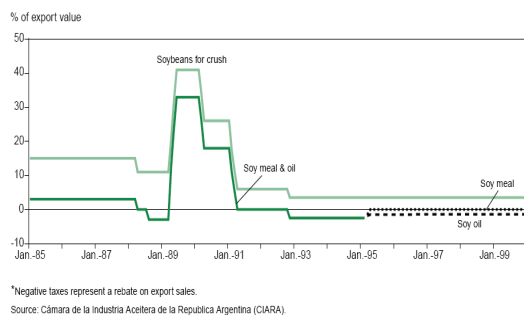


그림 2. 아르헨티나 대두관련제품의 수출세 부과율 추이

그러나 1990년대 초반 환율개혁 등의 경제개혁 조치로 농산물에 대한 왜곡조치가 많이 시정되고,

국제 농산물시장의 호조에 힘입어 대부분의 농업이 성장하는 추세인데, 특히 아르헨티나의 대두생산 및 수확량이 크게 늘어나 2004년말 현재 대두수출에 있어서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계 3위에 이르고 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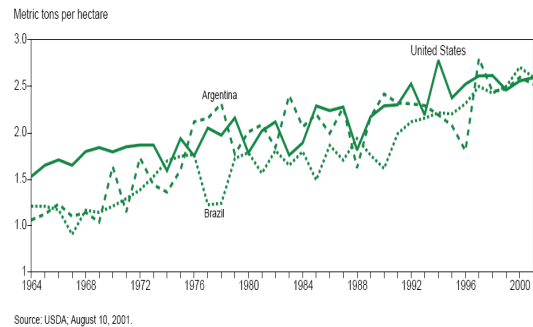


그림 3.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단위면적당 대두수확량 비교

광활한 토지를 지닌 아르헨티나에서 곡물은 가장 많이 재배되는 작물인 동시에 주요 농산물이다(표 1). 아르헨티나 전체 경제면적중 밀, 보리, 옥수수, 콩 등의 재배면적 비율은 2003년 기준으로 65.6%이며,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곡물의 중요도 순위를 보면 콩, 밀, 옥수수 등의 순서로 콩 재배면적은 1,242만ha, 생산량은 3,480만톤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콩이 가장 많이 재배되는 이유는 우선 콩 재배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졌음은 물론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원으로서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남미의 밀 최대 생산국인 아르헨티나는 2003년의 경우 1,453만톤을 생산하여 616만톤을 수출함으로써 수출 기준으로 세계 5위, 10.2%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과일생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포도주용 포도와 사과, 배, 감귤류로서 포도는 안데스산맥 근처의 멘도사(Mendoza)주가 주

표 1. 아르헨티나의 주요 농작물 생산면적 및 평균 수확량

농작물 종류	재배면적	평균 수확량(kg/ha)	생산시기
대두(Soybean)	12,606,845	2,803	2002/03
밀(Wheat)	6,300,210	2,033	2002/03
옥수수(Maize)	3,084,374	6,477	2002/03
해바라기(Sunflower)	2,378,000	1,598	2002/03
귀리(Oat)	1,368,400	1,666	2002/03
면화(Cotton)	410,905	-	2000/01
수수(Sorghum)	592,740	5,031	2002/03
호밀(Rye)	337,640	1,402	2002/03
사탕수수(Sugar Cane)	335,036	-	1997/98
잠두류(Beans)	292,680	-	1997/98
보리(Barley)	269,240	2,199	2002/03
포도원(Vineyards)	209,000	-	
마떼차(Maté)	201,600	-	1997/98
땅콩(Groundnuts)	157,326	1,412	2002/03
쌀(Rice)	135,170	5,400	2002/03
감자(Potatoes)	119,165	-	1997/98
담배(Tobacco)	84,454	-	1997/98
오렌지(Oranges)	60,129	-	1996/97
기장(Millet)	49,850	1,844	2002/03
차(Tea)	43,145	-	1997/98
밀(Durum wheat)	42,800	2,476	2002/03
레몬(Lemon)	38,679	-	1996/97
감귤(Tangerine)	36,770	-	1996/97
양파(Onions)	23,657	-	1997/98
잇꽃(Safflower)	23,000	605	2002/03
카나리아종자(Canary seeds)	19,095	987	2002/03
마늘(Garlic)	15,801	-	1997/98
보리(사료용: forage)	14,450	1,732	2002/03
아마(Flax)	13,800	815	2002/03
자몽(Grapefruit)	13,458	-	1996/97

출처: 아르헨티나 경제부 농목축수산물국(SAGPyA)

산지이고, 그밖에 산후안(San Juan)주를 중심으로 관개시설을 이용해서 재배되고 있다.

칠레가 세계 최대의 포도수출국이지만 생산물량 상으로 아르헨티나에 뒤지고 있는데, 2004년의 경우 아르헨티나는 237만톤의 포도를 생산한 반면 칠레는 175만톤을 생산하였다. 다만 칠레는 포도주용 포도뿐만 아니라 생식용 포도도 많이 생산하는 반면 아르헨티나는 포도주용 포도 생산이 많다. 실제로 멘도사주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90%는 포도주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사과는 파타고니아 리오네그로 강의 물을 이용하여 리오네그로 강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남미에서 칠레와 더불어 최대 사과 생산국으로 2004년 126만톤의 사과를 생산하였다. 사과와 아울러 배 또한 남미의 최대생산국으로서 2004년도 배 생산량은 51만톤이다.

아르헨티나는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으로, 2001년 기준으로 남미국가의 전체 수출 중 농산물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르헨티나 48.2%, 파라과이 45.2%, 우루과이 29.5%, 브라질 21.1%, 칠레 9.8% 수준이다. 최근(2004년도 기준)에는 전체 수출에서 농산물의 수출비중이 59%로 더욱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금액으로 미화 177억만불에 이르고 고용효과 측면에서도 559만명이 종사하고 있어 전체 고용인원의 35.6%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아르헨티나의 경우 광활한 경지면적(2004년도 기준, 172백만ha)을 바탕으로 인구규모(3,900만명), 즉 국내수요 보다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므로 해외로 수출할 수밖에 없는 사정에 기인하며, 더욱이 국제시장에서 수요가 늘어나면 생산여력이 있는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 국가들은 증산을 통해 농산물 수출을 더욱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르헨티나에서 농산물 유통은 생산자의 생산 규모에 따라 그 방식이 크게 달라지는데, 소규모

독립농가의 경우 자체 생산물을 중간상, 유통전문회사, 가공회사에 판매하거나 일부 개별 유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중규모의 농가는 자체적으로 또는 주변 인근농가와 공동으로 선별 집하장(packing house)을 구축하고 생산물을 선과 및 포장하여 직접 유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회사농은 국내 또는 해외자본을 바탕으로 최신식의 대규모 선과, 포장시설을 갖추고 직접 생산한 농산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생산물을 구매하여 유통, 판매, 수출까지 일괄 처리한다.

그러나 아르헨티나 농산물 유통에 있어 문제점은 자금이 풍부한 대규모 유통회사의 시장 장악력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격 결정능력이 지나치게 증대되어 자체 유통능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I. 농산물 유통현황

1. 주요 과수생산 현황

아르헨티나에서 과수산업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수출산업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한다. 국가 전체적으로 사과 재배면적은 48천ha, 배 재배면적은 23천ha 등이며, 사과와 배 생산의 99%, 물량으로는 약 백만톤에 달하는 양이 리오네그로(Rio Negro)와 네우퀸(Neuquen) 지역의 리오네그로 벨리, 멘도사(Mendoza) 지역의 우코 벨리에서 생산된다.

이중 최대 산지는 리오네그로와 네우퀸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서는 네우퀸강과 리메이(Limay)강의 물을 관개하여 사과농사를 짓는다. 이 지역은 사과재배에 적합한 한랭기후로 아르헨티나 사과, 배 재배면적의 90%를 점하고, 생산의 85%를 차지한다. 두 번째 사과, 배 주산지는 멘도사 지역의 우코 벨리로서 재배면적의 24%, 생산량의

14%를 점한다.

주요 생산품종으로는 사과와 경우 Red Delicious(80%), Granny Smith(15%), Golden Delicious, Gala, Pink Lady 등이 있으며, 배의 경우 William's(40%), Packham's Triumph(35%), Beurre D'Anjou(10%), Red Bartlett(5%), Abate Fetel(2%) 등이 있다.

표 2. 아르헨티나의 연도별 사과 및 배 생산량

생산량 (톤)	2000	2001	2002	2003	2004
사과	800,000	1,300,000	850,000	900,000	1,260,000
배	480,000	650,000	550,000	550,000	510,000

출처: 아르헨티나 경제부 농목축수산물국(SAGPyA)

아르헨티나의 연간 과일류 및 가공품 수출액은 7억 달러에 달하며, 주요 전략 수출용 생과일은 사과와 배가 약 50%로서 주류를 이룬다. 과일 가운데 사과는 전체 생산량의 46%가 생과로 소비되고 있으며 54%가 농축주스 등으로 가공 처리되는데, 생과는 50% 가량이 수출되고 나머지 50%는 자국 내에서 소비된다. 배는 생산량의 77%가 생과로 소비되고 나머지 23%만 농축주스, 사이다 등으로 가공 처리되고 있으며, 이들 배 가공제품의 81%는 수출되며 19%만이 내수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00-2003년 동안 연평균 17만톤의 사과(미화 약 700만불)와 31만톤의 배(미화 약 1,600만

불)가 수출되었다. 수출대상국으로는 러시아, 벨기에, 네덜란드, 브라질 등을 비롯하여 오만, 이스라엘, 인도, 알제리, 모로코와 같은 신규시장도 아르헨티나 사과를 수입하기 시작하면서 수출부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하고 있는 사과 품종 가운데 Red Delicious가 66%, 이어서 Granny Smith 품종이 29%를 차지하고 있고 그 뒤에 Gala와 Pink Lady가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배 가운데서도 William's 품종이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유럽시장에서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수입국인 러시아와 이태리, 브라질, 벨기에 등이 주요 시장이며 최근 아시아지역 시장도 적지 않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아르헨티나는 현재 세계 제 3위의 농축 사과즙 생산/수출국이며 세계 최대의 농축 배즙 생산국이기도 하다.

감귤류의 최대 생산지역으로서 지구 북반구가 총 생산량의 70-80%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20-30%를 남반구에서 생산하지만, 기후적으로 정반대인 지역특성을 활용하여 북반구의 봄/여름철에 주로 감귤류를 생산해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국가들은 유리한 입장이다.

감귤류의 주요 생산지역으로는 아르헨티나의 북서지방에 해당하는 살타(Salta)주, 후후이(Jujuy)주, 투쿠만(Tucuman)주, 카타마르카(Catamarca)주, 메소포타미아지방인 미시오네스(Misiones)주, 코리엔테스(Corrientes)주, 엔트레리오스(Entre Rios)

표 3. 아르헨티나의 연도별 사과 및 배 수출량

수출량		2000	2001	2002	2003
사과	수량(톤)	100,000	200,000	170,000	200,000
	금액(미\$)	5,000,000	9,000,000	6,000,000	8,000,000
배	수량(톤)	280,000	315,000	310,000	325,000
	금액(미\$)	16,000,000	15,500,000	14,000,000	17,000,000

출처: 아르헨티나 경제부 농목축수산물국(SAGPyA)

주, 리포탈지방인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주 북부지역, 산타페(Santa Fe)주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2003년도 기준으로 총 230만톤에 이르는 감귤류가 생산되었는데, 품목별로는 레몬, 오렌지, 감귤, 자몽(grapefruits) 등이 각각 49.8%, 31.2%, 14%, 4.8%를 차지하고 있다.

표 4. 아르헨티나의 연도별 감귤류 품목 생산량

생산량 (톤)	1999	2000	2001	2002	2003
오렌지	650,000	800,000	900,000	750,000	720,000
레몬	1,000,000	1,150,000	1,200,000	1,300,000	1,150,000
감귤	330,000	450,000	500,000	475,000	324,000
자몽	175,000	190,000	175,000	175,000	113,000
합계	2,155,000	2,590,000	2,775,000	2,700,000	2,307,000

출처: 아르헨티나 경제부 농목축수산국(SAGPyA)

현재 감귤류 생산과 관련하여 생산업체 5,300개, 선과장 466개, 가공업체 15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약 10만명의 인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오렌지 생산량의 약 30%, 레몬 생산량의 약 76%를 가공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의 농축 레몬주스 수출국이며, 고품질로 인정받고 있는 감귤의 경우 세계시장의 약 3%를 점유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세계시장에서 아르헨티나 감귤류는 남아공, 뉴질랜드, 브라질, 우루과이와 같은 남반구국가들과 서로 경쟁해야한다.

2003년도 총 47만톤(미화 약 1억 7천만불 상당)에 가까운 감귤류가 수출되었는데, 이와 같은 수치는 국내생산의 20% 이상을 의미한다. 감귤류 품목별로는 레몬, 오렌지, 감귤, 자몽이 각각 생산량의 28.2%, 10.4%, 12.3%, 25.6%를 수출하고 있다.

표 5. 아르헨티나의 연도별 감귤류 품목 수출량

수출량 (톤)	1999	2000	2001	2002	2003
오렌지	75,000	40,000	110,000	90,000	75,000
레몬	200,000	200,000	250,000	275,000	325,000
감귤	30,000	23,000	35,000	47,000	40,000
자몽	22,000	17,000	24,000	23,000	29,000
합계	327,000	280,000	419,000	435,000	469,000

출처: 아르헨티나 경제부 농목축수산국(SAGPyA)

전체 수출물량의 68%를 EU가 수입하는데, 특히 네덜란드와 스페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이를 이어 러시아를 선두로 한 동유럽지역이 아르헨티나 감귤류 수출물량의 27%를 수입하고 있어, 양 지역을 합산했을 때 아르헨티나 감귤류 수출은 유럽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최근 일본시장과 중국시장이 아르헨티나 감귤류 수입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중국의 경우 레몬도 수입할 수 있도록 계속 외교적 차원에서 협상 중에 있다.

2. 농산물 유통체계

아르헨티나의 과수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는 독립농가, 포장 및 가공을 병행하는 통합농가, 유통까지 담당하는 회사농 등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전체 과일 농가의 50%를 차지하는 독립농가는 단지 생산에만 전념하며, 주요 특징으로는 자본 부족, 가족농업, 재래농법, 고비용 구조, 품질이 낮은 과일생산, 개별 유통 등이다. 통합농은 전체 과일 농가의 30%를 차지하는데 자신이 생산한 과일을 직접 포장하고 가공하기 때문에 강한 협상력을 가진다. 나머지 20%는 회사농으로서 가장 최신의 기술을 이용하여 과일농사를 짓고, 시장판매도 담당한다. 보통 이들 회사농들은 독일, 이탈리아, 프

랑스 자본과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과일농가들은 자신들의 과일을 판매할 선별 포장시설(packaging house)을 직접 선택한다. 유통 및 가공회사와 연계된 수직 통합의 사례도 있으나, 최근 들어 유통회사에 대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생산농가간의 연대를 결성하는 수평적 통합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가격이 고정된 경우 농가와 포장 및 가공회사간의 과일 판매와 구매는 무게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생산자에게 지불되는 가격은 연도별로 차이가 심한 편이다. 예를 들면 서리피해로 50%의 감산이 있던 2000년에는 주스 등의 가공용 과일에 대해 50%나 높은 가격이 지불되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가공용 과일이 신선 과일에 비해 낮은 가격이 지불된다. 지난 10년간 kg당 신선 사과 6-8센트(한화로 약 70원), 가공용 사과는 3-4센트(한화 기준 약 35원)가 지불되었다. 수출용 물량의 경우 우수한 생과품질을 전제로 이보다

훨씬 높은 kg당 25센트(한화기준 약 250원)가 지불되고 있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유통·가공회사와 생산 농가간의 계약생산이 대두되는 추세이며, 대규모 유통회사와 유통업자들은 물량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계약을 맺고 기술과 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들 대규모 유통회사의 시장 장악력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가격 결정능력이 지나치게 증대되어 자체 유통능력을 갖추지 못한 독립 생산농가 입장에서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생산농가간의 조합결성을 통한 자체 연대의 필요성이 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대규모 과일 유통회사로는 사과, 배 등을 주로 취급하는 Expo Frut, Mono Azul, 오렌지 감귤류를 다루는 AYUI, Citrus Vil, Cooperativa Tabacalera, 레몬을 주로 취급하는 San Miguel, Ledesma 등이 있다. 이들 대규모 유통회사는 주로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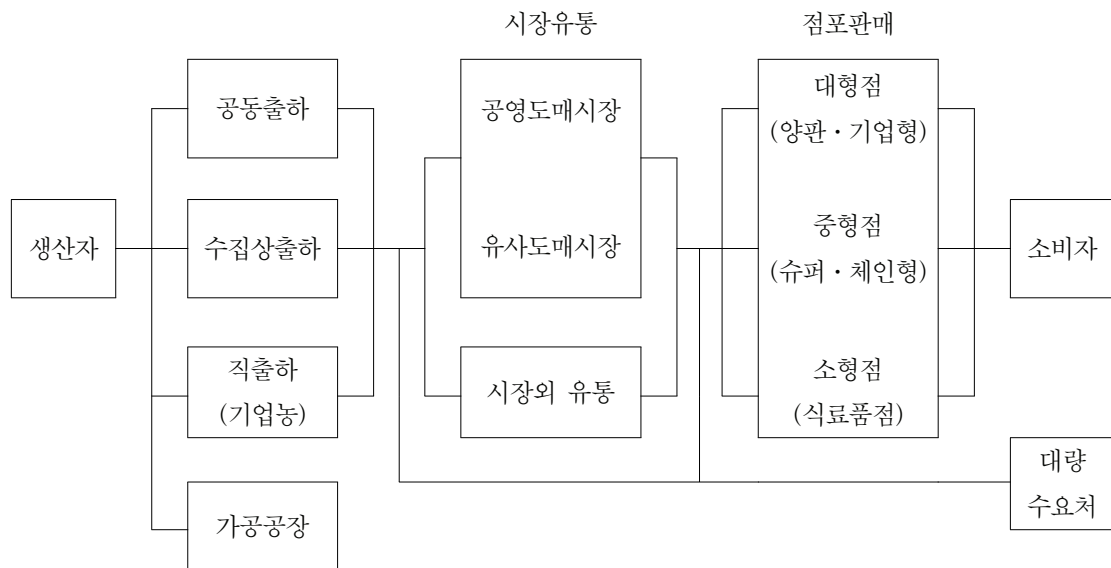


그림 4. 아르헨티나의 신선 농산물 유통경로 구조

유럽국가의 투자에 의해 설립된 현지 회사로서 규모가 대형일 뿐만 아니라 시설 및 운영 면에서도 선진국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Expo Frut사의 경우 이탈리아 Bocci group의 투자자금으로 리오네그로주의 라마르케(La Marque)시 지역인근에만 4개의 대형 과일 저장·선과·포장시설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사과, 배의 내수 및 수출 물량을 담당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농산물 유통구조의 특징은 인구 대다수가 모여 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시를 중심으로 슈퍼마켓, 체인점, 양판점 등의 중대형 소매기구가 매우 발달하면서도 도매시장의 유통기능이 비교적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과일, 채소류 신선 농산물의 유통경로는 농가 → 도·소매상 → 슈퍼마켓 등 중대형 소매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대부분 주산지에서 농산물의 신선도 유지 및 상품화를 위한 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선별 집하장(packing house)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통합농 또는 대규모 기업농의 경우 대량 수요처와 계약생산 및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대표적인 신선 농산물 도매시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관리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도매시장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에서 생산되는 과일, 채소류의 약 50% 가량을 취급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는 신선 농산물은 물론 수입 농산물까지도 다루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도매시장 외에도 아르헨티나의 각주마다 공영도매시장을 갖추고 있으며, 그밖에 규모가 작은 시장들도 다수 존재한다.

소비지에서의 농산물 유통은 주로 슈퍼마켓, 체인점, 양판점 등 중대형 소매기구가 담당하고 있으나,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영세 소매상이 남아 있는데 영세 소매상의 경우 품질에 비해 상품가격은 높으나 소비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당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5.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중앙도매시장, 대형 하이퍼마켓 Jumbo, 소매상점

3. 유통시설 구축 실태(storage, packinghouse, transportation)

아르헨티나 주산지별 신선 농산물의 유통시설 구축실태를 조사한 결과, 저장 및 선별 포장시설의 경우 회사규모에 따라 그 시설수준에 큰 차이가 있었다. 대규모 시설의 경우 주로 외국자본으로 설립된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으므로, 규모나 시설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을 능가하고 있으나, 중소규모의 시설은 통합농가가 연대하여 국내자본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설비를 갖추고 효율적으

로 가동 운영하고 있음에도 일정 부분 기술적인 취약성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 시설의 대표적인 예로서 리오네그로주 라마르케시 소재의 Expo Frut사 선과 포장시설의 경우 연간 과일 처리량은 4만톤 수준이며, 평균 처리시간은 15분(시간당 300kg 용량의 사과 보관함을 90개 정도 처리), 150톤 규모(300kg 용량의 사과 보관함을 500개 적재 가능) 저온창고를 19개 보유하고 있고, CA 창고(SPI사), 색채 선별기 등의 최신 설비를 구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리 용량의 대형화로 과일 유통의 중심기업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그림 6).



그림 6. Expo Fruit사의 과일 종합 선과처리장 외경

Expo Frut사 선과 포장시설의 구체적인 가동절차를 살펴보면, 농가에서 수확해온 원료 사과를 반입한 다음, 플라스틱 보관함(300kg 용량)에 담긴 그대로 자동 투입하여 대형 세척조에서 100ppm 염소 소독용액으로 1차 세척하고, 컨베이어로 이송하면서 수도수로 행군 후 비정상 외형이나 부실과 등을 중심으로 수작업에 의해 1차 선과를 실시하며, 53℃의 열풍건조로 표면 물기를 제거한 후 냉각하여 다시 외상, 흠집을 중심으로 다수 인원의 집중적인 수작업에 의해 2차 선과를 실시한 다음, 색채 선별기를 통과시켜 3차 선별을 실시하고 이러한 과정을 마친 과일에 대해 개별 라벨을 부착한다. 이후 크기, 중량 선별을 거쳐 골판지와 펄프몰드 난좌를 사용하여 과일을 상자 포장한 다음, 상자 표면에 표시사항(품종, 수량, 중량, lot number 등)을 인쇄하고 이를 팔레트에 일정하게 적재한 후 0℃로 유지되는 냉장창고에서 보관하다가 주문에 의해 상차하여 출고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통상 사과의 경우 5월부터 농가에서 원료를 들여와서 입고하였다가 그해 12월까지 약 7개월간 CA 창고에 보관하면서 주문 접수에 따라 출고하며, 사과, 배와 같은 이과류 과일은 별도의 당도 선별과정을 거치지 않으나, 바나나, 망고, 키위 등의 과일은 당도 선별과정을 수행하고 있다. 주로 겨울철에 수확되는 사과, 배 등은 별도의 예냉과정 없이 창고에 입고하거나 선과처리에 들어가지만, 기타 과일의 경우 필요에 따라 공기예냉(냉기 온도 -9℃) 방식을 사용하여 예냉 처리를 하기도 한다.

중형규모 과일 선과 및 포장시설의 전형적인 예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산페드로(San Pedro)시 소재 Frutales사 오렌지 선과처리장을 들 수 있다(그림 7). Frutales사는 산페드로 인근에서 감귤류를 생산하는 농장주 4인이 공동으로 투자하



그림 7. Frutales사 오렌지 선과처리장 시설

여 설립한 과일 유통회사로서 자신들의 생산물뿐만 아니라 인근지역의 생산물을 선과 및 포장 처리하여 국내 공급은 물론 유럽,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지의 해외에 직접 수출하기도 한다.

Frutales사의 오렌지 선과 포장처리 과정은 생과 원료반입, 세척 및 소독, 표면 건조, 비정상과(대과/소과) 선별, 비상품과(표면 흠집 및 상처) 선별, 중량/크기 선별, 개별포장 및 상자포장, 과일 수량 인쇄, 팔레트 적재, 표시사항(품종, 수량, 중량, lot 번호, 생산자, 수출지역 등) 부착, 출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원료 오렌지의 반입은 대형 상자(bulk bin, 200kg 내외) 상태로 이루어지며, 이를 그대로 세척조에 부어 세척과 염소수 소독을 동시에 실시하고 열풍으로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 다음,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비정상과를 중심으로 1차 선별한 후 다시 표면 흠집이나 상처가 있는 과일을 중심으로 2차 선과하여 상품성이 있는 정상과는 크기/중량 선별기를 거치고 상품성이 떨어

지는 비대과나 소형과는 저가의 상품으로 별도 포장하거나 또는 주스 가공용으로 대형 상자에 다시 담는다.

전반적으로 설비시설이 선진국 수준에 가까울 뿐만 아니라 선과 처리장 내부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제를 바닥에 뿌리는 등의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수출용 과일을 처리하는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유지 관리가 철저하다. 수출용 감귤류의 경우 반듯이 국립농산물품질위생관리청(SENASA)의 확인 인증서를 받아 별도로 상자표면에 부착한 채로 출고시킨다.

한편 또 다른 중형규모의 채소류 선과 및 포장 처리시설로서 멘도사(Mendoza)주 로스코라리토스(Los Corralitos) 지역에 위치한 Pontoni 농장의 마늘, 당근 선과장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농장은 로스코라리토스 인근 지역의 농업인 4명이 공동 운영하는 것으로 농장규모가 1,000ha(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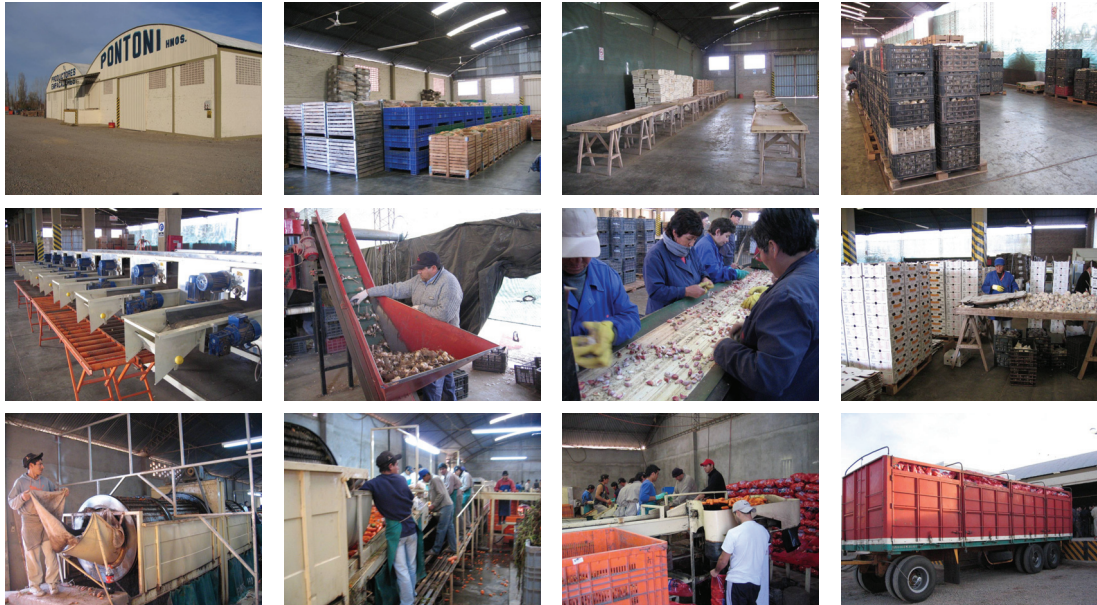


그림 8. Pontoni 농장의 마늘과 당근 선과처리장 시설

늘 350ha, 당근 300ha 등)에 이르며, 상시 고용 종업원은 80명(성수기 500명)이고 마늘과 같은 일부 품목의 경우 수집상 기능도 병행하는 농업회사이다. 주로 마늘을 재배하고 있으며 수확기 이후 당근, 호박, 토마토, 고추 등을 이모작 한다. Pontoni 농장에서 생산된 채소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도매시장에 있는 자사의 상점을 통해 내수용으로 공급하고, 상당 물량은 유럽, 미국, 아시아, 브라질 등으로 직접 수출한다. 마늘의 경우 브라질에 전체 물량의 65~70%를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2005년 2월)에는 한국에도 약 800톤의 마늘을 FOB 기준 kg당 미화 1불의 가격으로 냉장 컨테이너를 사용하여 수출한 경험이 있다.

주요 취급 품목인 마늘과 당근의 선과 및 포장 처리시설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값싼 노동력을 적절히 활용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그림 8). 마늘 선과장의 경우 작업장 크기가 약 6,000m²이고 1일 처리량이 약 2,000~3,000 단위

(4.5kg 상자 기준)에 이르며, 처리물량의 60%는 자체 농장의 생산물이고 나머지 40%는 인근 농장(모두 GAP 인증 농가)의 생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다. 마늘은 수확기에 따라 다르지만, 흰마늘, 적색마늘, 중국마늘 등을 주로 취급하며, 일본에 수출하는 대형 엘리펀트 마늘(한통에 약 200g 상당)은 4.5kg 용량의 상자에 25개씩 담아 kg당 미화 1.6불의 가격에 출고한다. 당근, 호박, 토마토, 양파 등 내수용 채소류의 경우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도매시장에 있는 자사 상점에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대형 트럭(28톤 적재가능)을 사용하고 있으며, 장장 1,100km에 달하는 장거리 운송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략 1,800페소(한화 60만원)라고 한다.

소형규모의 선과 포장시설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주의 라쁘라타(La Plata) 지역에 위치한 Huertas Verdes 농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농장은 전체 3.7ha 규모로 철골구조의 유리온실(1동 크기: 9,700m²)에서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는데, ha당



그림 9. Huertas Verdes 농장의 토마토 선과장(packing house) 시설

200톤을 생산하며 가격은 kg당 1.3페소(약 400원) 수준이고 생산비는 매출액의 60%에 해당한다. Huertas Verdes 농장은 자체 생산하는 토마토뿐만 아니라 인근 다른 농장 수확물도 선과 및 포장 처리하여 내수는 물론 수출도 담당하고 있는데, 주요 시설로서 냉장창고(약 50평), 세척 선과기(중량 선별), 포장라인을 갖추고 있다(그림 9).

선과장내에 설치된 시설은 매우 간단하고 비교적 노후화된 편이지만 계속해서 유지 보수관리를 잘하여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징적인 사항은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선과 포장이 완료된 상품 토마토는 냉장차를 이용하여 운송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러한 소규모 선과장의 경우 시설설비의 수준보다는 적절한 노동력 사용과 함께 얼마나 효과적으로 시설을 가동하는가에 따라 선과장의 활용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르헨티나 신선 농산물의 유통시설 가운데 하나로서 대표적 도매시장인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도매시장(Mercado Central de Buenos Aires)을

소개하면, 연방정부 및 부에노스아이레스 주정부와 시정부가 농산물 생산자와 유통업 종사자를 위해 1984년에 공동 출자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면적 540ha, 시설부지 230ha로 관리인만 약 4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영도매시장이다(그림 10). 장내 주요 시설로는 신선 과일, 채소류를 주로 취급하는 창고형 시장동 18개소(전체면적은 127,240m²이고 각동의 면적은 약 50m × 150m로 내부에 45개 박스형 점포 입주), 서비스 지원동 2개소(23,556m²), 상품 저장용 창고동 3개소(31,870m²), 생선 시장동 1개소, 운송차량 통제소(3,008m²), 행정관리센터(20,974m²), 시설관리정비소(4,193m²), 주차장 및 도로(665,000) 등이다.

도매 시장동 사이에는 자유판매대가 설치되어 있고 전체 시장동에 약 700여개 업체(생산자, 유통업자 등)가 입주해 있으며, 시장 중심부까지 2개의 철도가 설치되어 있어 전국 철도망과 연결할 수도 있다. 중앙도매시장의 부속기관으로서 품질관리실(QC lab)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서는 품목별 시료에 대해 잔류농약검사 등의 생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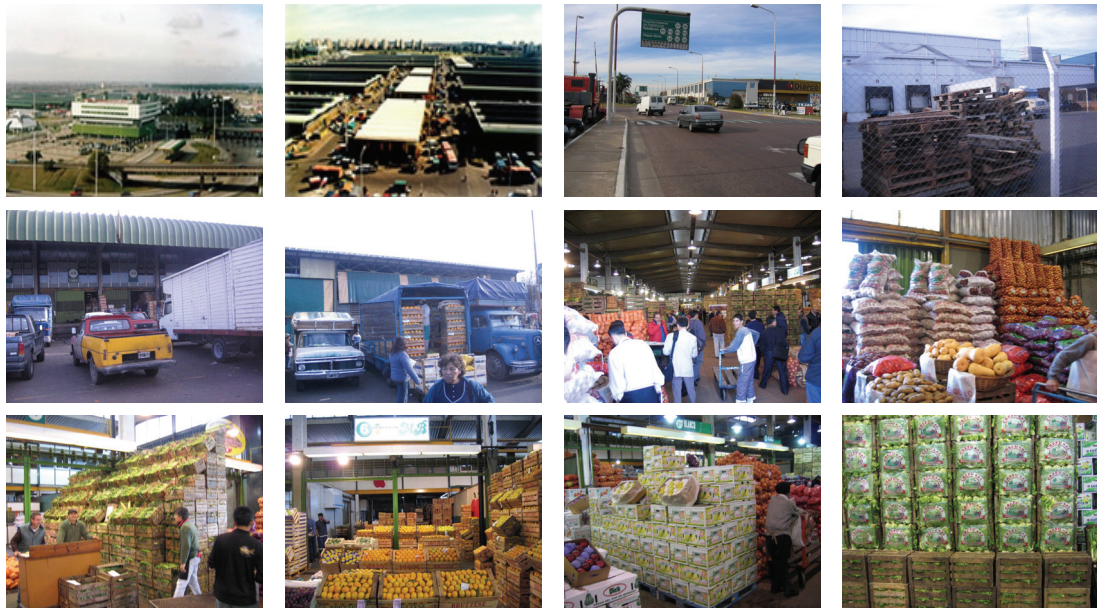


그림 10.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도매시장의 전경, 시장 내부 및 거래 농산물의 진열 모습

학적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아울러 감사요원의 현장검정 등을 병행하여 도매시장에서 유통 거래되는 신선 농산물의 품질관리를 전담한다. 국가적으로 농축산물의 품질관리는 국립농산물품질위생관리청(SENASA)에서 담당하지만, 중앙도매시장의 경우 SENASA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자체 관리하고 있다.

설립 초창기에는 경매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지금은 경매를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부에노스아이레스지역에서 유통되는 과일, 채소류의 약 40-50%를 담당하고 나머지 50%는 작은 규모의 시장을 통해 분산하여 유통한다. 그러나 일부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도매시장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의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을 직접 유통 판매하기도 한다. 중앙도매시장에서는 현재 축산물을 전혀 취급하지 않고 있으며, 축산전문도매시장으로서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서 약 40-50km 떨어진 지역인 리니아스(Liniers)와 마따데로(Matadero)에 별도의 도축장과 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중앙도매시장에서는 화훼류도 일부 취급하고 있으나, 에스꼬바르(Escobar) 및 아베사네다(Avellaneda) 지역에 별도의 화훼전문도매시장이 존재한다.

중앙도매시장에 반입되는 신선 농산물은 품목별로 각 개별규격에 맞춰 포장한 것을 팔레트에 적재하여 운반하며, 제도적 규제여부는 확실치 않으나 무포장 상태로 반입되는 상품은 찾아볼 수 없다(그림 11). 과일이나 채소류 대부분은 나무상자, 골판지상자, 플라스틱상자, 필름포대, 마대, 그물망대 등에 일정 수량씩 규격 포장하여 유통되는데, 산림자원이 풍부한 영향으로 포장재로서 다른 소재에 비해 나무상자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포도, 자두, 키위, 토마토, 시금치 등의 경우 운송과정에서 수분증발에 따른 상품의 중량감소를 방지하고 간이 MA 효과를 얻기 위해 상자내부에 LDPE, HDPE와 같은 플라스틱 고분자필름을 내지(liner)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흔히 발견된다. 녹색껍질 콩이나 꽃양배추와 같이 단위 중량에 비해 부피가 큰 채소류는 주로 그물망대에 포장하고, 세척 당근, 고구마, 감자, 양 등



그림 11.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각종 신선 농산물의 포장 현황

의 중량물 구근 채소류는 플라스틱 필름포대 또는 마대에 담아 운송하고 있다.

생산자가 들여온 물품에 대해 도매시장은 상장 수수료(판매액의 8-12%)를 부과하고 도매업자의 경우 장소 사용료, 임대료 등의 수수료를 납부하며, 상품 거래시 부과세 10%와 소득세 3%를 납부해야한다. 일반적으로 생산자가 직접 상품을 출하하거나, 입주업체인 유통회사가 직접 현지에서 구매하여 반입하는 경우가 많아 중간상인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장반입 농산물은 통상 전날 저녁 10시에 하차하고 상품 거래업무는 다음날 아침 5시에 시작하며, 농산물 이송반입 작업은 연중무휴로 계속되지만 판매거래는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 5일에만 이루어진다.

중앙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은 전국 각지에서 운송된 80-90개 품목의 과일, 채소류(곡물은 전산거래로 취급)로 연간 약 150만톤에 달하는

수량을 거래하는데, 여기에는 적지 않은 물량의 수입 농산물도 포함된다. 그밖에도 반입 거래되는 농산물의 가격과 수량을 매일 통계수치로 발표하고, 국내외 시장관련 자료를 축적 보관하여 생산자, 수출입업자, 국내외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참고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도매시장에서 2005년 5월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요 신선 농산물의 가격 동향을 아래에 나타내었다(표 6).

한편 농산물 운송체계와 관련하여 아르헨티나의 기반시설을 조사한 결과(표 7), 국토가 광활한 탓에 기반시설의 정비가 상당히 부족한 형편이며 운송수단 부문별로도 개발 정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농산물 운송은 주로 트럭을 이용한 육로에 의존하고 있고 일부 선박을 이용한 수로이동을 보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6.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도매시장 거래 주요 농산물의 가격 동향

	무게(kg)	가격(Peso*)	비 고
배	18-20	30	
배(적색 서양배)	18-20	25-30	
사과	20	25	
사과(상품)	20	44	
감	3.5	10	21개 들어
포도(칠레산)	10	26	
키위	10	10	
바나나(에콰도르산)	22	24	
감자	40	14	
피망	12	12	
토마토	18	16	
당근	20	6-8	
양파(특상품)	20	12	
양파(중품)	23	10	
양파(하품)	23	6-8	
마늘(적색마늘)	6.5(100개 1집)	43-44	
고구마	10	7	
호박	16	9-10	
파	0.8	1	1단 적제
옥수수	14	12	껍질 있음
상치	4	6	
배추	10	6	
호박	16-17	11	박 형태

* 2005년 5월 기준 환율: 350원/Peso 내외

표 7. 아르헨티나의 운송수단 기반시설 현황

운송수단 (기준년도)	구축 시설 내용
철도 (2003)	총길이 34,091 km (전철구간: 167 km) 광 레(레도 폭: 1.676 m) 20,594 km (전철구간: 141 km) 표준레(레도 폭: 1.435 m) 2,885 km (전철구간: 26 km) 협 레(레도 폭: 1.000 m) 10,375 km 협 레(레도 폭: 0.750 m) 237 km
도로 (1999)	총길이 215,471 km 포장도로 63,348 km (고속도로 734 km) 비포장도로 152,123 km
수로 (2004)	11,000 km
파이프라인 (2004)	가스 27,166 km; 액화석유가스 41 km; 원유 3,668 km; 정유 2,945 km; 미확인(원유/물) 13 km
항구/항만 (2005)	Bahia Blanca, Buenos Aires, Comodoro Rivadavia, Concepcion del Uruguay, La Plata, Mar del Plata, Necochea, Rio Gallegos, Rosario, Santa Fe, Ushuaia
상선 (2005)	총 26 척 (1,000 GRT 이상 규모) 149,007 GRT/212,620 DWT 대형운반선 2, 화물선 9, 화학약품 운반선 1, 여객선 1, 여 객/화물선 3, 석유운반선 7, 냉장운반선 2, 차량탑승선 (roll on/roll off) 1
공항 (2004년 추정)	총 144 개소(포장 활주로) 활주로 길이 3,047 m 이상 4 개소; 2,438-3,047 m: 26 개소; 1,524-2,437 m: 62 개소; 914-1,523 m: 44 개소; 914 m 미만: 8 개소

출처: The World Factbook (CIA, USA)

III. 식품가공 산업현황

아르헨티나의 식품가공 산업은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새로운 자본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어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분야이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에는 약 21,500개의 식품가공공장이 있으며 이들의 전체 매출액은 미화 260억불에 달하는데, 채유가공 산업부문이 전체 매출액의 29%, 음료 21%, 유가공 10%, 육류가공이 7%를 차지한다. 현지 식품가공 산업은 대규모 자본투자 및 수출 중심적 전략덕분에 전체 국가경제 성장속도보다 다소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어,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속도는 3-6%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 국내 식음료 산업계에서 사용하는 원료산물의 총액은 대략 미화 85억불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며, 식품 첨가물시장은 미화 1억불 규모로 향신료가 5,500만불, 첨가제와 보존제가 나머지에 해당하고 이 가운데 약 15% 정도가 수입제품이다.

아르헨티나의 식품가공 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주요 시장변수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선 대형 다국적 식음료 제조사가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공설비와 기술을 도입하고 있고, 절대적인 수출 지향적 구조와 낮은 이윤, 유통 경로 확보 및 유통체계의 자동화,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가공식품(냉동식품, 즉석식품 등)의 생산 확대, ISO 및 HACCP 도입 등 식품 안전성관련 규제강화, 제품의 품질인증 및 표준화 확대, 친환경 제품의 증가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가공식품에 대해 품목별로 생산 및 수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곡물/유류작물 및 가공제품

주요 곡물 및 유류작물 생산은 아르헨티나 경제현황의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수

년간 지속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예전 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는데, 이는 유전자조작(GM) 종자, 직파법과 같은 새로운 농업기술 도입을 통해 재배면적 증가와 생산성 향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곡물 가운데에서도 밀, 옥수수, 대두, 해바라기를 포함한 4대 주요 작물이 전체 아르헨티나 곡물생산의 90%를 차지한다.

곡물생산의 경우 2003-2004년 기간에 밀(45.5%), 옥수수(39.9%), 수수(6.8%) 등을 중심으로 총 3,180만톤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류작물은 대두(90%)와 해바라기(9%)를 중심으로 총 3,550만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울러 34.3만톤의 면화와 13.1톤의 조리용 콩이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표 8. 주요 농작물의 생산량 변화

생산량(톤)	2001/2002	2002/2003	2003/2004(*)
곡류	34,228,000	31,912,000	31,827,000
옥수수	14,710,000	15,040,000	12,700,000
밀	15,300,000	12,300,000	14,530,000
수	2,847,000	2,685,000	2,180,000
유류작물	34,246,820	38,768,750	35,558,000
대두	30,000,000	34,800,000	32,000,000
해바라기	3,843,000	3,714,000	3,240,000
식용 콩	278,000	215,000	131,000
면화	218,000	201,000	343,000
합계	69,608,920	71,096,750	67,859,000

출처: 아르헨티나 경제부 농목축수산국(SAGPyA), *추정치

식물성 유류부문에 관하여 2003-2004년 기간 생산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578만톤으로 전망된다. 제품별로는 대두유가 총 생산의 약 76%를 차지하면서 절대적인 수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해바라기유가 22.5%(130만톤)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유지박이나 분말과 같은 유류작물의 부산물제품의 경우 2003-2004년 기간동안 큰 변화 없이 2,640만톤으로 예상되고, 주요 품목으로는 대두분(1,980만톤), 소맥분(480만톤), 해바라기분말(140만톤)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대두분에 관한 아르헨티나는 현재 세계 3위의 생산국이며 제 1위의 수출국이다. 또한 최근 들어 아르헨티나는 세계시장에서 대두유 및 해바라기유, 각종 부산물제품의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세계 2위의 옥수수 및 수수 수출국으로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3위의 대두 수출국이기도 하다.

표 9. 식물성 유류 및 부산물 제품 생산량 변화

생산량(톤)	2001/2002	2002/2003	2003/2004(*)
식물성 유류	5,350,000	5,810,000	5,780,000
대두유	3,650,000	4,300,000	4,400,000
해바라기유	1,550,000	1,420,000	1,300,000
기타	150,000	90,000	80,000
부산물	23,700,000	26,220,000	26,400,000
제품(박, 분말)			
대두	17,000,000	19,500,000	19,800,000
해바라기	1,500,000	1,500,000	1,420,000
기타	500,000	500,000	420,000
밀	4,700,000	4,700,000	4,800,000

출처: 아르헨티나 경제부 농목축수산국(SAGPyA), *추정치

2003년도 통계로 볼 때 곡물, 유류작물, 식물성 유류, 기타 부산물제품 등을 합하여 총 5,320만톤이 수출되었고, 이는 2002년도와 비교하여 약 13% 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이 가운데 51%가 곡물과 유류작물에 해당되며, 식물성 유류와 부산물제품의 경우 각각 10%와 39%를 차지하고 있다.

대두의 경우 2002년도 대비 44% 증가하여 2003년에는 미화 25억불 상당인 885만톤을 수출하였고, 대두유와 대두분의 수출은 각각 433만톤과

1,925만톤을 기록하면서 아르헨티나가 이 두 품목에 있어서 최대 수출국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현재 대두는 세계 30개국 이상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이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지난 2003년에 중국은 총 600만톤을 수입하면서 아르헨티나 대두의 주요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대두유와 대두분은 50개국 가까이 수출되고 있는데, 대두유의 경우 인도, 방글라데시, 이란 등을 주요 수입국으로 꼽을 수 있고 대두분은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같은 유럽국가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해바라기유와 분말은 2003년도에 각각 100만톤과 120만톤이 수출되면서 2002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들 제품은 각각 전 세계 68개국, 22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 이란, 남아공화국,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이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표 10. 주요 농작물 및 가공제품의 수출량 변화

수출량(톤)	2001	2002	2003(*)	세계 순위
곡물	29,270,943	24,972,109	27,334,014	
해바라기	69,441	311,139	215,010	1
옥수수	10,721,743	9,300,539	11,647,993	2
대두	7,453,837	6,170,630	8,850,612	3
수수	438,478	317,180	583,739	2
밀	10,587,444	8,872,621	6,036,660	5
식물성 유류	4,529,963	4,657,510	5,384,300	
대두유	3,518,150	3,592,000	4,337,000	1
해바라기유	1,011,813	1,065,510	1,047,300	1
부산물 제품	16,248,024	18,200,200	20,451,800	
대두	15,161,509	17,054,200	19,245,800	1
해바라기	1,086,515	1,146,000	1,206,000	1
합계	50,048,930	47,829,819	53,170,114	

출처: 아르헨티나 경제부 농목축수산물(SAGPyA), *추정치

1990년대 초반 시장개방 및 정책개혁 이래 채유산업 부문의 기술과 시설확장에 막대한 민간투자가 이루어졌다. 이에 힘입어 1일 채유능력이 1994년 58,000톤에서 2000년에는 94,268톤으로 늘어났다. 아르헨티나 채유산업시설의 75%는 산타페 지역에 있으며, 대부분의 채유시설은 항구 또는 그 근처에 위치해 있다. 가공비용이 낮고 파라나·파라과이강 운하 입구에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가공시설은 브라질 남부, 볼리비아, 파라과이를 위해서도 가동되며 대두박과 대두분의 경우 주로 수출용으로 가공된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채유종자 분쇄시설이 매우 발전하여 대두가공제품 수출에 주력해왔다. 이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 아르헨티나의 대두가공제품 수출 신장률은 연평균 10%를 웃돌아 1995년부터는 아르헨티나가 세계 1위의 대두박 수출국이 되었으며, 1997년부터는 제 1위의 대두분말 수출국이 되어 대두가공제품 수출에 있어 브라질을 능가하였다. 1999-2001년간 아르헨티나의 대두박과 대두분말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각각 35%, 41%였고, 생산량으로는 각각 1,380만톤과 310만톤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대두제품 수입에 관한 정책이 바뀌면서 대두가공제품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다. 1999년 7월 중국은 자국 내 식물성 유류 가공 산업부문의 육성을 위하여 모든 수입 대두분에 대해 13%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책전환에 따라 중국 입장에서 보면 채유 부산물제품보다는 채유종자 자체의 수입이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이런 사실을 반영하여 중국의 대두 수입량은 2000년에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1,320만 톤인데 반해, 대두박 수입은 80% 감소한 80,000톤에 불과하였고 대두분말 수입도 63.3만톤에서 12.5만톤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대두 및 대두가공제품에 대한 중국의 수입정책 변화로 인해 대두 수요가 증가하여 아르헨티나, 브라질, 미국의 대두 생산자와 수출업자들이 혜택을 본 반면, 가공부문은 수출량뿐만 아니라 이윤의 급격한 감소를 겪어야 했다. 2000년도 대중국 아르헨티나의 대두 수출은 전년 대비 189% 증가한 280만톤이었고 브라질의 대중국 대두 수출은 146% 증가한 210만톤이었으나, 양국의 대두박 수출은 크게 감소하였다.

2. 낙농제품

1990년대를 거치면서 아르헨티나의 낙농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기록하며 연간 생산량을 배가시킬 수 있었다. 이 기간동안 새로운 기술도입을 통해 품질이 개선되었으며 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다.

전체 우유 생산량의 75%가 분유, 치즈, 버터 등의 가공제품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25%만 생우유로 소비된다. 2003년도 우유 생산량은 2002년 대비 7% 감소하여 총 790만 리터가 생산되었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세계 제 16위의 낙농제품 생산국으로서 100개국으로 수출하고 있는데, 2003년에는 미화 2.89억불 상당인 16.4만톤의 제품이 수출되었다. 수출제품의 75%가 분유이고 그 외에 치즈나 버터 등이 있다. 주요 수출 대상국으로는 브라질, 알제리, 멕시코, 칠레, 미국, 베네수엘라 등이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 2003년 5,000만불 상당에 이르는 낙농제품 3.2만톤을 구매하면서 전체 수출물량의 20%를 가져갔다.

표 11. 낙농제품의 수출실적 추이

수출실적	2000	2001	2002	2003
수량(톤)	143,356	148,900	213,442	164,587
금액(백만불)	327	288	311	289

출처: 아르헨티나 경제부 농목축수산국(SAGPyA)

3. 양봉제품

최근 수년간 아르헨티나의 양봉업은 경이로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생산량의 95% 이상이 수출되므로 해외시장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볼 수 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제 3위의 꿀 생산국으로 연 평균 7.5만톤의 꿀을 생산하는데, 이는 전 세계 생산량의 6%에 해당한다. 또한 수출물량에 있어서는 중국과 멕시코에 앞서 아르헨티나는 세계 최대 꿀 수출국으로 국제거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에는 미화 1.6억불에 상당하는 7만톤의 꿀을 수출하면서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였는데, 2002년도와 비교할 때 수출량이 12% 하락하였지만 국제가격은 오히려 약 40% 가량 상승한 덕분에 가능한 결과였다. 전체 꿀 생산량의 98%가 대량으로 거래되며, 수출물량의 70%가 EU 지역(독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으로 나가고 호주, 미국, 캐나다 등도 중요한 수입국이다. 아르헨티나산 꿀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여 까다로운 수입조건을 갖고 있는 나라들로부터도 품질을 인정받은 바 있다. 또한 꿀 이외에 화분, 프로폴리스, 로열젤리와 같은 기타 양봉제품도 수출 잠재력이 높은 상품으로 판단된다.

4. 포도주

지난 40년 동안 아르헨티나의 포도주 생산은 전반적으로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어 1961년 1,670만 헥토리터가 생산된 반면 2003년에는 1,320만 헥토리터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러나 중간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1961년부터 1983년까지는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다가 1983년부터 1995년까지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비교적 국내 생산량이 안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회복세에는 화폐의 평가절하와 포도주 생산용 품종전환 등의 역할이 크다고 본다.

포도주 생산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왔던 세계의 다른 생산국과 달리, 아르헨티나는 생산량 감소와 더불어 세계시장 참여율 또한 축소되었다. 1961년 당시 아르헨티나는 전 세계 포도주 생산량의 7.79%, 중남미 지역의 68.79%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2003년 현재 각각 4.92%와 56.47%로 줄어 들었다.

표 12. 연간 포도주 생산량 변동

년도	포도주 생산량(백만헥토리터)
2000	12
2001	15.5
2002	12
2003	13.2

출처: Direction National de Alimentacion-Cadenas Alimentarias-Informe Vinos 2004

특히나 주목해야 할 변화는 절대적인 생산량보다도 내부 생산구조의 변환이다. 1979년 당시 국내 생산의 65%를 담당했던 멘도사주가 2003년 현재에는 75%로 성장하였고, 반면 산후안주는 같은 기간 동안 25%에서 20%로 생산비율이 오히려 줄어 들었다.

최근 10년간 아르헨티나는 꾸준히 포도주 생산을 늘려왔다. 1990년 44.5만 헥토리터를 수출했으나 2003년 현재에는 185만 헥토리터에 이르고 있어, 지난 13년 동안 포도주 수출량이 316%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외화로 환산 시 1990년 1,500만불을 수출하였으나 2003년 현재는 1.69억불로 추정되고 이중 80%가 고급 와인에 해당되는 물량이다. 즉, 이러한 수출증가를 달성하는데 있어 고

급 포도주의 역할은 결정적인 것으로, 1990년 753만불에 불과했던 고급 포도주의 수출액을 2003년 1.39억불로 끌어올리면서 수출금액이 13년 동안 1,748%나 증가하였다.

표 13. 연간 포도주 수출량 및 금액 변동

포도주 수출	물량(헥토리터)	금액(미화, 백만불)
2000	850,000	120
2001	900,000	145
2002	1,250,000	130
2003	1,800,000	169

출처: Direction National de Alimentacion- Cadenas Alimentarias-Informe Vinos 2004

2003년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산 포도주의 주요 수출 대상국(물량)은 남아공화국(16.42%), 러시아(15%), 파라과이(10.4%), 영국(9.44%), 미국(7.86%) 등이 있으나 수출금액 측면에서는 미국(20.26%)과 영국(15.88%)이 수위를 달리고 있다. 한편 최근 소비자의 선호도가 바뀌면서 일반 포도주의 소비가 대폭 감소한 반면, 고급 포도주의 소비는 기록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포도주연구소에 의하면 현재 약 700개 정도의 포도주 양조장이 아르헨티나에 있는데, 90% 이상이 산후안이나 멘도사주에 위치해 있고 더욱이 멘도사주에만 국내 포도주 생산업체의 70%가 몰려있다고 한다. 1990년대를 전환점으로 신규자본, 특히 해외자본이 포도주 생산부문에 투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런 해외자본은 대체로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 업체를 매입하여 새로운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고급 포도주를 생산하고 이를 수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5. 수산가공제품

아르헨티나 해안선의 길이는 5,000km가 넘고, 대륙붕의 규모는 749,400km²이며 경제수역(EEZ)은 1,164,500km²에 이르고 있다. 아르헨티나 동편 해안의 남대서양은 온/냉기후의 영향을 받아 비록 상대적으로 다양치는 않지만 풍부한 양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수역 규모와 서식어류의 제한성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어업은 양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현재까지 조업은 경제수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산업 발전을 위해 타 지역으로 조업 가능한 수역을 확장하고자 고려중이다. 한편 서식어종의 제약과 관련하여서는 조업대상 해산물의 60% 이상이 오징어, 새우, 메를루사(대구와 비슷한 생선) 3가지 어종에만 집중되어 있다.

해외시장은 아르헨티나 어업의 주요 활력소로서 2003년 전체 486,530톤(8.87억불 상당)의 해산물을 수출하여 무역부문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매출규모로 봤을 때 EU가 2003년 수출시장의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서도 새우를 주로 수입하는 스페인이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해산물 수출의 95% 이상이 냉동상품이고 이 중에서도 냉동 횡레(fillet)가 30%에 해당되는데, 특히 메를루사의 비중이 큰 편이다.

내수시장은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아서 전체 어획량의 15% 정도를 소비하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수요가 가톨릭교의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맞춰 2/4 분기에 몰리고 있으며, 마르델플라타(Mar del Plata)시가 주요 공급항구로서 메를루사, 오징어, 대구, 연어 등이 주 거래품목이라 할 수 있다.

표 14. 수산물/수산가공제품의 수출 규모

수출 품목	금액(미화, 백만불)	물량(톤)
활어 생선	0.038	2
냉장 생선(횡레 제외)	10	12,607
냉동 생선(횡레 제외)	116	131,892
횡레 및 가시제거 생선	228	152,073
기타 생선류	18	14,712
갑각류	388	47,635
연체류	105	90,834
비가식 수산물	0.3	521
어유 및 유지	5.2	1,031
생선 및 해산물 추출액	0.004	4
통조림 생선	3.7	1,566
통조림 해산물	3.6	737
생선 박, 분말 등의 부산물	14	32,528
합계	887	486,132

출처: 아르헨티나 경제부 농목축수산물국(SAGPyA)

생산된 가공식품이나 음료제품의 아르헨티나 국내 유통현황을 살펴보면, 제품이 생산업체에서 출고된 이후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한 판매 거래처를 통해 유통된다.

표 15. 종목별 가공식품 및 음료제품의 유통 판매 비율(%)

종목	판매처 셀프서비스점 (양판점, 슈퍼마켓)	호텔, 식당, 급식장(HRI)	소매점	기타 산업체
낙농제품	50	25	20	5
육류	34	7	59	-
제빵류	18	51	31	-
통조림채소	50	40	10	-
건조채소	-	-	5	95
냉동채소	5	70	20	5
삼페인	40	30	30	-
시아다(사과발효액)	35	55	10	-
포도주	25	40	35	-
맥주	38.5	30	31.5	-
탄산음료	71	-	29	-
주류(증류주)	20	75	-	5
과자류(스낵)	7.5	47	35.5	10
사탕	29	1	70	-
과자류(크래커)	52	33	15	-
생선제품	15	35	35	15

출처: 미국 농무성(USDA, FAS)

참고로 아르헨티나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대표적 식품업체로는 Arcor, Molinos Rio de La Plata, Danone, Nestle, Refinerias de Maiz, Terrabusi, Ledesma, Canale, Kraft Suchard, Quimica Estrella, San Sebastian 등이 있으며, 이들 업체의 개황은 다음과 같다.

표 16. 아르헨티나의 주요 식품업체 현황(1998년 기준)

기업명 (생산품목)	소유권	매출액 (미화, 백만불)	주 고객	대리점(개소)
Arcor (사탕, 초콜릿, 향료)	아르헨티나	124	일반 소비자, HRI	아르헨티나(37) 브라질(3) 칠레(1), 페루(1) 우루과이(1) 파라과이(1)
Molinos Rio de La Plata (소맥분, 육류, 생선, 소시지, 닭고기, 냉동식품, 유지종자, 제빵류, 과일주스)	아르헨티나	1,107	일반 소비자, HRI	아르헨티나(14)
Danone (낙농제품, 제과류, 제빵류)	프랑스	533	일반 소비자, HRI	아르헨티나(3)
Nestle Argentina (냉동식품, 가공채소류, 낙농제품, 스낵, 제빵류, 조제식)	스위스	435	일반 소비자, HRI	아르헨티나(4)
Refinerias de Maiz (식물성 유류, 소스, 케이크믹스)	미국	321	일반 소비자, HRI	아르헨티나(3)
Terrabusi (Nabisco) (스낵, 제빵류, 제과류)	미국	278	일반 소비자, HRI	아르헨티나(3)
Ledesma (설탕)	아르헨티나	261	일반 소비자, HRI	아르헨티나(3)
Canale (제빵류, 낙농제품)	아르헨티나	231	일반 소비자, HRI	아르헨티나(2) 브라질(4)
Kraft Suchard Argentina (주스, 초콜릿, 제과류)	미국	198	일반 소비자, HRI	아르헨티나(2)
Quimica Estrella (건조식품, 음료)	칠레	167	일반 소비자, HRI	아르헨티나(4)
San Sebastian (닭고기)	아르헨티나	156	일반 소비자, HRI	아르헨티나(3) 우루과이(1)

출처: 미국 농무성(USDA, FAS)

한편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되는 주요 제품별로 매출(생산량) 상위를 기록하고 있는 식품업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17. 제과류

기업명	생산량(톤)	위치	주 고객
Arcor	85,703	부에노스아이레스 포르도바	일반 소비자, HRI
Cadbury-Stani	20.6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Kraft Schuard	12.82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Adams	8.26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Terrabusi (Nabisco)	6,025	부에노스아이레스 산루이스	일반 소비자, HRI

표 18. 크래커/쿠키

기업명	생산량(톤)	위치	주 고객
Bagley	88,410	부에노스아이레스 산루이스	일반 소비자, HRI
Terrabusi (Nabisco)	82,516	부에노스아이레스 산루이스	일반 소비자, HRI
Arcor	35,364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Lia	23,576	포르도바	일반 소비자, HRI
Canale	14,735	부에노스아이레스 산루이스	일반 소비자, HRI

표 19. 스낵류

기업명	생산량(톤)	위치	주 고객
Arcor	6,108	부에노스아이레스 포르도바	일반 소비자, HRI
Terrabusi (Nabisco)	5,162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Bagley	4,814	부에노스아이레스 산루이스	일반 소비자, HRI
Kraft Suchard	2,920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표 20. 주류(증류주)

기업명	생산량(리터)	위치	주 고객
Sava	30,001,300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후안	일반 소비자, HRI
Cinba	11,143,340	산후안	일반 소비자, HRI
Allied Domecq	9,428,980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Cusenier	8,571,800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표 21. 맥주

기업명	매출액(미화, 불)	위치	주 고객
Cerveceria y Malteria	413,628,757	부에노스아 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Cerveceria Santa Fe	62,400,000	부에노스아 이레스 산타페	일반 소비자, HRI
CCBA (Brahma)	54,297,129	부에노스아 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Isenbeck	39,000,000	부에노스아 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표 22. 포도주

기업명	판매량(리터)	위치	주 고객
Bodegas Lopez	16,000,000	멘도사	일반 소비자, HRI
Chandon	9,900,000	멘도사	일반 소비자, HRI
Esmeralda	9,000,000	멘도사	일반 소비자, HRI
La Rural	9,000,000	멘도사	일반 소비자, HRI

표 23. 샴페인

기업명	내수판매량(리터)	위치	주 고객
Chandon	8,500,000	멘도사	일반 소비자, HRI
Toso	5,500,000	멘도사	일반 소비자, HRI
Martelen	1,000,000	멘도사	일반 소비자, HRI
Seagrams	800,000	멘도사	일반 소비자, HRI

표 24. 음료(무알코올)

기업명(품목)	생산량(리터)	위치	주 고객
Villavincencio (광천수)	160,500,000	산후안	일반 소비자, HRI
Villa Del Sur (광천수)	155,150,000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Coca cola (탄산음료)	1,408,350,000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Pepsi cola (탄산음료)	698,450,000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RPB (주스)	362,610,000	엔트레리오스 산루이스	일반 소비자, HRI
Suin (주스)	295,460,000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Cepita/Cipolleti (주스)	44,800,000	멘도사	일반 소비자, HRI
Kasfruit (주스)	25,760,000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Tang/Clight (주스)	588,000,000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Ades (신세대음료)	36,400,000	뚜꾸만	일반 소비자, HRI
Gatorade (스포츠음료)	27,300,000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Terma (식육증진음료)	95,700,000	산후안	일반 소비자, HRI
Herba (기능성음료)	26,400,000	멘도사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표 25. 통조림 채소류

기업명	내수판매량(톤)	위치	주 고객
Arcor	5,308	멘도사, 산루이스	일반 소비자, HRI
Versalles	3,814	산타페	일반 소비자, HRI
Benvenuto	2,436	멘도사, 리오네그로	일반 소비자, HRI
Cartellone	1,204	멘도사	일반 소비자, HRI

표 26. 건조 채소류

기업명	내수판매량(톤)	위치	주 고객
Jacques Matas	1.05	멘도사	일반 소비자, HRI
Refinerias de Maiz	1.0	멘도사	일반 소비자, HRI
Cartellone	560	멘도사	일반 소비자, HRI

표 27. 냉동 채소류

기업명	내수판매량(톤)	위치	주 고객
Molinos Río de La	1,326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Unilever	427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Norte	388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MC Cain	330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표 28. 제빵류

기업명	내수판매량(톤)	위치	주 고객
Fargo	64.6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일반 소비자, HRI
Bimbo	18.4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Alijor	11.7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La Perla	9.5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표 29. 소고기

기업명	내수판매량(톤)	위치	주 고객
Frigorifico Rioplatense	352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Swift-Armour	295.5	산타페	일반 소비자, HRI
Gral Las Heras	273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Quickfood	239,000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표 30. 돼지고기

기업명	내수판매량 (톤)	위치	주 고객
Paladini	45.9	산타페	일반 소비자, HRI
Tres Cruces	29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Quickfood	25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Rafaela	20.4	산타페	일반 소비자, HRI

표 31. 닭고기

기업명	내수판매량 (천마리)	위치	주 고객
Stoni Group/San	6,058	부에노스아이레스 엔프레리오스	일반 소비자, HRI
Rasic	4,534	부에노스아이레스 엔프레리오스	일반 소비자, HRI
Tres Arroyos	3,992	부에노스아이레스 엔프레리오스	일반 소비자, HRI
Soychu	17,625	엔프레리오스	일반 소비자, HRI

표 32. 건조 파스타

기업명	내수판매량 (톤)	위치	주 고객
Molinos Rio de La	46.1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타페	일반 소비자, HRI
Nabisco	37.3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Lucchetti	21.32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Manera	19.95	부에노스아이레스	일반 소비자, HRI

표 33. 마요네즈-소스

기업명	내수판매량 (톤)	위치	주 고객
Refinerias de Maiz	31	부에노스아이 레스	일반 소비자, HRI
Molinos Rio de La	19.66	부에노스아이 레스	일반 소비자, HRI
Danica	7.1	부에노스아이 레스	일반 소비자, HRI

표 34. 낙농제품

기업명	내수판매량 (톤)	위치	주 고객
Mastellone	835,616	부에노스아이레스 코르도바	일반 소비자, HRI
Sancor	521,321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타페	일반 소비자, HRI
Milkaut	119,236	산타페, 차코	일반 소비자, HRI
Nestle	85,521	부에노스아이레스 엔프레리오스	일반 소비자, HRI